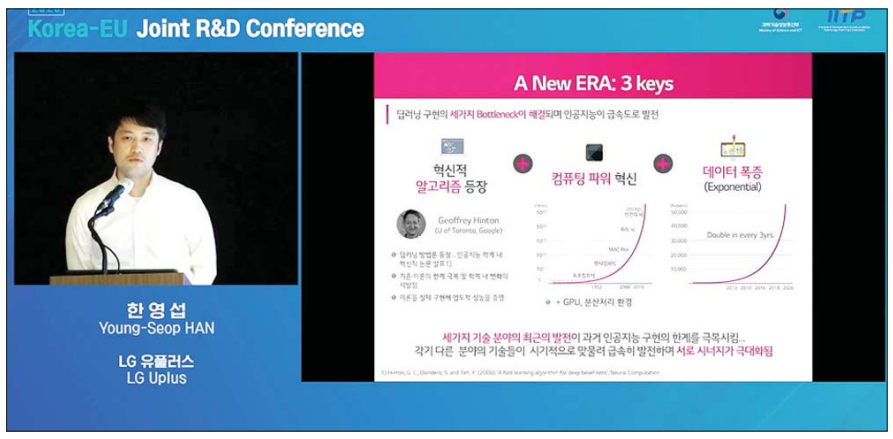
“AI, 유아영역 넘어 추론·예측 가능한 청소년 수준 진화”

한-유럽연합 공동연구 컨퍼런스

‘5G 셀룰라’ 등 프로젝트 성과 공개
데이터·AI·5G 기술 등 패널토론
“국내기업 해외진출 위해 협력 강화”



한영섭 LG유플러스 연구원이 1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한-유럽연합(EU) 공동연구 컨퍼런스’에서 ‘AI 서비스 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작동되는 유아-어린이 수준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현재 AI가 휴대폰 구매 상담 현장에서 청소년 수준으로 상담사를 코칭하는 추론·예측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또 향후에는 AI가 직접 결정을 내리는 성인 수준의 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영섭 LG유플러스 연구원은 1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한-유럽연합(EU) 공동연구 컨퍼런스’에서 ‘AI 서비스 동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AI는 영상, 이미지 기술이 먼저 적용됐으며 자연어처리는 한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어려워 다소 늦게 적용돼 발전되고 있다”며 “AI 산업이 활기를 띰에 따라 산업공학, 자동차 개발자도 AI 개발역량을 길러 AI 개발자에 지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LG유플러스는 2017년부터 챗봇을 준비했는데, 고객센터 상담 챗봇은 현재도 많지만 휴대폰 구매 영역에는 챗봇이 거의 없었는데 딥러닝 의도 분석 기술로 챗봇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영상 지능형 CCTV, 화재탐지나 침입배회 감지,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음원으로 감지하는 기술에 딥러닝을 적용했으며, 드론과 증강·가상현실(AR·VR)에도 AI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2차 ICT(정보통신기술) 공동 연구과제를 진행해 ‘5G셀룰라’, ‘프리모-5G’, 인공지능(AI)을 위한 ‘디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공개했다.

우선, ‘5G셀룰라’ 프로젝트로 위성과 셀룰라 간 유연한 연동을 통한 5G 무선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EU의 CEA-레티 등이 참여 중으로 26억7000만원이 투자됐다. 이를 해 셀룰러, 위성 등 이종 액세스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광범위한 서비스 커버리지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연세대 등과 EU의 알토유니버시티 등이 참여해 이동체 간 가상현실을 위한 5G 이동통신 연구로 ‘프리모-5G’ 기술을 개발 중이다.

특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EU의 FBK 등이 참여해 AI(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IoT(사물인터넷) 연동 분산 엣지-클라우드 기술인 ‘디센터’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승우 KETI 연구원은 “엣지컴퓨팅은 2020년 소프트웨어 산업을 변화시킬 트렌드”라며 “데이터를 담당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클라우드 엔지니어 중간 단에 시너지를 내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조강연 세션에서는 핀란드 6G 플래그십 총괄책임자인 오울루대학 마티 라트바아호 교수가 ‘차세대 6G 통신기술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각 국의 ICT 정책 소개로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과기정통부 발표를 시작으로 EU 정보통신총국이 EU의 스마트네트워크 정책을,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스페인의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과 EU 전문가 간 온라인 패널토론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인공지능과 5G 기술의 글로벌 동향 및 차기 한-EU 공동연구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오상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최근 한국 경제는 ICT 산업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AI, 5G 융합서비스 등 ICT 핵심 기술 선점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유럽 국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신세계, 3분기 흑자 전환… 영업이익 251억

리뉴얼 등 지속적인 유통 혁신 성과
신세계인터 등 자회사 실적 개선

신세계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2144억원, 영업이익 251억원을 기록했다.

12일 신세계에 따르면, 직전 분기인 2020년 2분기에 비해 매출은 19.7% 늘었고, 영업이익도 682억원 늘어나며 흑자로 전환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24.2%, 영업이익은 73.8% 감소했다. (연결기준 2020년 2분기 매출 1조 144억원, 영업이익 -431억원, 2019년 3분기 매출 1조 6026억원, 영업이익 959억원)

국내 유통시장에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인천공항 등 면세점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면 빠른 회복세다. 별도(백화점)기준 3분기 실적은 매출액 3,638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전분기대비 2.8% 신장하며 안정적인 매출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외관 /신세계백화점

영업이익은 281억원(전년대비 -44.6%)으로 전분기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이 같은 신세계백화점의 빠른 회복세는 ▲강남점 등 지역 1번점 전략을 기반으로 한 대형점포의 실적 선도 ▲타임스퀘어, 강남점 등 리뉴얼을 통한 오프라인 백화점 본업 경쟁력 강화 ▲업계 최초 미술품 상시 판매, 장르별 VIP 신설 등 지속적인 유통 혁신에 주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디에프, 센트럴시티, 까사미아 등 신세계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도 눈에 띈다.

지난 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한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센트럴시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흑자로 돌아섰고, 면세점과 까사미아는 전분기에 비해 적자폭을 줄이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시아나, 현산에 계약금 몰취 소송 제기

계약금 2177억 자유 사용 취지
현산측 “아직까지 아는 바 없어”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매각이 무산된 지 약 2개월 여 만에 아시아나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4월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금 몰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현산과의 M&A(인수 합병) 파기 이후 질권(담보) 설정으로 묶여있던 계약금 2177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다.

해당 계약금은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된 상태다. 에스크로 계좌란 일정 조건에 이를 때까지 결제 금액을 예치해 두는 계좌를 뜻한다.

현산은 이 같은 계약금 몰취 소송과 관련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산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으며, 향후 소장 송달 등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금호리조트의 매각 추진을 시작으로, 아시아나가 향후 인력 감축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아시아나는 지난 9월 11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약 2조40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일단 기안기금의 지원 조건인 6개월간 고용 총량의 90% 이상 유지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채권단과의 기안기금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4월 이후 인력 감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르면 내달 초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김학도 “국내 물류 시스템 한단계 업드레이드 할 것”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스마트물류설비제조협회 간담회
“중진공, 충실한 동반자로서 역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2일 “국가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편의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국내 물류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인천 청라의 현대무벡스 R&D센터에서 인천 스마트물류설비제조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K-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대·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내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스마트 K-물류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에는 김 이사장 외에 김동환 인천 스마트물류설비제조협회장과 회원사, 현대무벡스 윤종인 상무, 쿠팡 최이규 이사, 한샘 이향호 이사 등 대·중소기업 관계자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노홍승 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원필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앞줄 왼쪽 4번째)이 12일 인천 청라 현대무벡스R&D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K-물류 대·중소기업 상생 현장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김 이사장은 “중진공은 중소기업 제조현장 혁신을 위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사업을 이어달리기 식으로 지원하고 든든한 조력자이자 충실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경동나비엔, 러시아서 ‘올해의 기업상’ 수상

2018년에 이어 두번째 수상

경동나비엔이 러시아에서 다시한번 호평을 받았다.

경동나비엔은 러시아 ‘올해의 기업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지 진출한 보일러 기업으로는 2018년에 처음 수상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러시아 국민브랜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기업상’은 러시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지난 199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았다.

경동나비엔은 새로운 난방 및 온수 시스템인 캐스케이드 시스템이나 지역 난방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통합배관 시스템인 히티허브를 선보이는 등 러시아 난방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동나비엔 러시아 법인 직원들이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웃고 있다.

/김승호 기자